# ‘양수발전소 유치’ 정치·행정 한뜻

## 진안군, 전북 국회의원·도지사·군수 최초 공동서명… 전북 공동과제 공식화

진안군은 지역의 핵심 현안인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전북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이끌어 내며 본격 행보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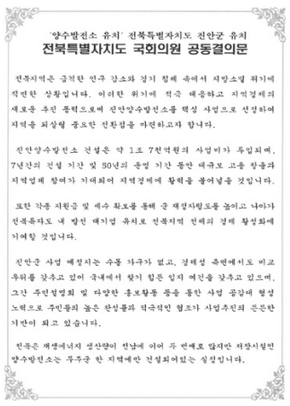
지자체 주도 사업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 군수가 공동으로 서명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진안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물론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설명하며 전북 차원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공동서명이 성사됐다.

이번 공동서명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정동영, 이춘석, 안호영, 한병도, 이원택, 이성윤, 박희승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는 특정 인물 중심이 아닌 전북 정치권 전체가 지역 현안을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연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공동결의문에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인프라 구축,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 실현,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양수발전소 건설의 정책적 필요성이 담겼다.


‘양수발전소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공동결의문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공동결의문.

특히 이번 결의서는 소관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전달됐으며, 사업의 신속한 검토와 추진을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치·행정이 공동명의로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진안군을 넘어 전북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공동서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전북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은 이번 공동결의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을 26일 처음 지급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 장수군, 전달식·상생소비 한마당 행사 열려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을 26일 처음 지급했다.

이에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달식’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상생소비 한마당’ 행사를 군청 군민회관 및 잔디광장에서 개최하고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의 힘찬 개막을 군민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훈식 장수군수,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기본소득 전달식은 그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제1회 기본소득 수령자들과 함께 청년활력센터 조성, 이동마켓 운영 등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달식에서 장수군 기본소득 1호 수령자에게 장수사랑상품권을 전달할 때 참석자들의 큰 박수 속에서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징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군청 잔디광장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생산자가 참여하는 ‘상생소비 한마당’이 함께 열려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마당 행사장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 총 14개의 판매·체험 이벤트 부스가 운영됐으며 군민들은 이날 첫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직접 상품을 구매하며 지역경제 선순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장수=고판호 기자

# ‘발굴로 되살아난 대차리의 시간’

## 무주상상반디숲서 사진전 개최

무주군이 삼국시대 무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사진전 ‘발굴로 되살아난 대차리의 시간’을 오는 3월 29일까지 무주상상반디숲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2018년 무주 대차리 고분군 발굴조사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발굴 현장과 고분 내부, 출토 당시 상황, 유물 등을 소개하며 무주의 산과 땅,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정교하게 축조된 석곽묘 구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굽다리 긴 목 항아리와 굽다리 접시, 짧은 목 항아리, 뚜껑 등 토기류와 철기 유물, 금동 귀걸이 등 삼국시대 고분 문화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다.

무주 대차리 고분군은 백제·신라·가야의 경계가 맞닿았던 무주읍 대차리 차산마을 인근에 위치한 고분 유적으로, 산줄기 정상부와 사면부를 따라 석곽묘가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유적은 전북 지역 단일 고분 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신라 토기가 출토된 곳으로, 2018년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면서 신라의 호남 진출 과정과 당시 무주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후원금품 전달식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사협)는 26일 산약초타운 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및 후원금 전달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25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함께 2026년 시행예정사업이 보고되고 올해 진사협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어 진행된 후원 전달식에서 한오백년추어탕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추어탕 100개를 정기후원하기로 약정하며, 나눔실천에 동참했다.

또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심상동 감사는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으며, 진안군청 사회복지직 모임인 진사행연(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 단체에서도 특별회비 100만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 참가자 모집

무주군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도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은 오는 4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등나무운동장에서 운영되며, 1~3학년은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4~6학년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무주 지역 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이며 총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3월 5일 5~6학년, 3월 6일 3~4학년, 3월 7일 1~2학년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을 검색한 뒤 채팅창에 학생의 학교명, 학년, 이름과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를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1~2학년 30명, 3~4학년 40명, 5~6학년 30명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읍 외 면 지역 등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택시 교통비를 지원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무주=손홍기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무상지원

장수군은 지난 23일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무상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GPS 기반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배회감지기는 시계형으로 대여받을 수 있고 보호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치매환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존 범위를 설정해 치매환자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지정구역 이탈 알림과 함께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별도의 알림까지 제공된다.

장수군은 올해 총 50대의 배회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기기 구입 비용과 2년간의 통신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로, 보호자가 단독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나 보호자 방문은 필수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고원길 함께걷기’ 프로그램 운영

진안고원길(대표 이재현)이 2026년 ‘진안고원길 함께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총 6회 개최되며, 첫 걷기 행사는 2월 28일에 시작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안고원길을 처음 접하는 초보 보행자나 혼자 걷기보다 여럿이 함께 소통하며 걷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회차별 최대 20명 규모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해 참가자들이 동행자들과 보다 친밀하게 교류하며 진안고원길만의 고즈넉한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1회씩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진안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